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김지현*, 김보미**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Factors Influencing Acculturative Stress of Migrant Workers

Ji-Hyun Kim*, Bo-Mi Kim**

Dep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Dept. of Social Work, Chungche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편의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충청 남·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1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2016년 6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집되었으며 연구 자료는 SPSS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r=-.465, p<.001$)와 자아존중감($r=-.353, p<.001$)은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단계별 다중회귀분석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beta=-.21, p<.001$), 직업($\beta=-.02, p<.05$)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자아존중감이었다. 모형의 설명력 23.0%로 나타났다($F=27.672, p<.001$). 이러한 연구결과 볼 때,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이 기대된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국인근로자,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 esteem in migrant workers. The data of 181 subjects were collected from June 1st to September 27, 2016,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3.0 program.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among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r=-.465, p<.001$) and self esteem($r=-.353, p<.001$).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self esteem($\beta=-.21, p<.001$) and job($\beta=-.02, p<.05$)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ve stress($F=27.672, p<.001$).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efforts, to improve self esteem, and to increase social support, are required to decrease acculturatives stress among migrant woker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in development of supportive program for migrant workers adaptation. In the following study,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bout additional fa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migrant workers will be needed.

Key Words : Acculturative stress, Migrant wokers, Self esteem, Social support, Adaptation

* 본 논문은 2016년 대전대학교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29 June 2017, Revised 31 July 2017

Accepted 20 August 2017, Published 28 August 2017

Corresponding Author: Kim Bo Mi(Chungcheong University)

Email: jheyelin@dju.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04년 고용허가제와 2007년 방문 취업제를 실시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96만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율을 보였다[1].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추세는 국내 경제성장과 더불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1].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다른 나라에서 유급으로 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자를 의미하며[2], 이들은 국내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주요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미비하여 열악한 노동환경은 지속되고 있다[3].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들은 업무에 대한 과한 부담, 업무의 반복성과 단조로움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문제의 발생 비율이 높으며[4], 자신의 역할 문제, 보수문제, 직무스트레스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부적응의 문제 또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에 비해 언어적 불편감 등으로 인한 적응 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직장 내의 부적응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Berry[6]는 인간은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다른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는 개인들은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6].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 차별, 정체성 혼란,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는 상실감 등으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3]. 특히 단일 문화와 민족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경험하는 차별, 편견, 언어 갈등 등의 사회적 요인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8]. 이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증, 자존감 저하, 불안감, 관계 갈등과 같은 정신적 건강 문제를 유발할 뿐 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9].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교육, 연령, 성별, 다른 문화의 접촉 경험 등과 같은 개인적 대처 자원이나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10,11].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 및 한국어 수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정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12].

사회적 지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주요한 자원으로[8], 사회적 관계 안에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 자원이다[12].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8],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13], 우울, 불안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과 적응을 증진시킨다[8,14]. 이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지는 모국공동체에 참여하거나 자국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5].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한 존재이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13].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를 원만히 유지시키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돕는 필수 요건이다[13,15].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16].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서툰 언어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저하 등으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며[17],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생활의 만족도 저하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발하고[17], 사회적 적응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18].

이처럼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2,19, 20,21,22],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 및 원인을 파악하거나[10,23]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7] 부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체로 선정하였으나 외국인 근로자라는 특성과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편의표집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나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2],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단체 및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 등록된 충청 남·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성인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문화적응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도구는 Sandhu와 Asrabadi[2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Lee[25]가 한국어로 번역하고 Lee 등[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4개 문항의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평정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총점 및 각 영역별 점수를 5점으로 표준화한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7개의 하위영역은 차별감 6문항, 향수병 5문항, 적대감 5문항, 두려움 3문항, 문화충격 3문항, 죄책감 2문항, 기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ee[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2.3.2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Zimet, Dahlem, Zimet와 Farley[26]의 MSPSS(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Shin과 Lee[27]가 재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문항이며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4문항,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지지 4문항,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평정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과 Lee[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8]가 개발하고 Jo[29]가 사용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 Esteem Scale, SES)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평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Rosenberg[28]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설문지는 연구에 참여한 6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익명성 보장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과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 정도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총 201부였으며, 이 가운데 설문 문항에 부분 응답한 20부를 제외하고 총 181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을 비교하고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Table 1> Difference of Acculturative Stress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8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tor F	p
Nationality	China	52(28.7)	2.90±0.79	.215	.956
	Indonesia	42(23.2)	2.87±0.64		
	Vietnam	55(30.5)	2.79±0.68		
	Mongolia	10(5.5)	2.81±0.67		
	Bangladesh	10(5.5)	2.98±0.71		
	Nepal	12(6.6)	2.76±0.86		
Education	Elementary	6(3.3)	2.49±0.75	1.503	.215
	Middle school	26(14.4)	2.71±0.51		
	High school	136(75.1)	2.92±0.76		
	College or higher	13(7.2)	2.68±0.41		
Marital status	Single	75(41.4)	2.93±0.71	.610	.544
	Married	100(55.3)	2.81±0.73		
	Divorced	6(3.3)	2.85±0.17		
Religion	Have	34(18.8)	2.88±0.76	.236	.814
	None	147(81.2)	2.85±0.71		
Monthly income (hundred thousands won)	Less than 100	14(7.7)	2.85±0.60	.252	.860
	101-200	108(59.7)	2.84±0.66		
	201-300	52(28.7)	2.91±0.80		
	Over 301	7(3.9)	2.68±1.15		
Work Period (months)	Below 3	6(3.3)	2.52±0.21	2.040	.091
	4-6	12(6.6)	3.31±0.95		
	7-12	66(36.5)	2.98±0.70		
	13-24	78(43.1)	2.90±0.60		
	Over 24	108(59.7)	2.79±0.73		
Type of Occupation	Simple labor ^a	128(70.7)	2.81±0.68	2.896 (a<d)*	.037
	Service Business ^b	39(21.5)	2.85±0.79		
	Agriculture, mining, Fishing ^c	6(3.3)	2.79±0.67		
	Specialist ^d	8(4.4)	3.57±0.71		
Age	Mean±SD		31.87±7.90		

*Scheffe test
p<.001, p<.05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총 181명으로 모두 남성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1.9세이었다. 대상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55명(30.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중국 52명(28.7%), 인도네시아 42명(23.2%), 네팔 12명(6.6%), 몽골 10명(5.5%), 방글라데시 10명(5.5%)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81.2%가 종교가 없었으며, 55.3%가 기혼 상태였다. 대상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36명(75.1%)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26명(14.4%), 대학교 졸업이상 13명(7.2%), 초등학교 졸업 6명(3.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은 2년 이상이 108명(5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3~23개월 동안 거주한 대상자가 78명(43.1%)로 많았다. 월 급여는 101~200만원이 108명(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일반노동직이 128명(70.7%)으로 가장 많았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직업($F=2.896, p<.0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상자의 국적, 교육정도, 결혼상태, 종교, 월 급여, 한국 내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3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 자아존중감 정도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2.86(\pm 0.71)$ 점(Range 1~5), 사회적 지지는 $40.34 (\pm 0.11)$ 점(Range 12~60), 자아존중감은 $28.15 (\pm 4.76)$ 점(Range 10~40)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은 보통 정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하위 7개 범주로 구분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항수병’이 $3.08(\pm 0.78)$ 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기타’가 $2.95(\pm 0.81)$ 점, ‘문화충격’ $2.93 (\pm 0.97)$ 점, ‘죄책감’ $2.86(\pm 0.94)$ 점, ‘차별감’ $2.80(\pm 0.83)$ 점, ‘두려움’ $2.77(\pm 0.99)$ 점, ‘적대감’ $2.77(\pm 0.88)$ 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s of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 Esteem (N=181)

Variables	Mean±SD	Range
Acculturative stress	2.86±.071	1-5
Social support	40.34±10.11	12-60
Self Esteem	28.15±4.76	10-40

3.4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상관계수는 .35에서 .60의 범위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r=-.465, 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r=-.353,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99, p<.001$).

<Table 4> Correlation of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 Esteem (N=181)

Variables	Acculturative stress r(p)	Social support r(p)	Self esteem r(p)
Acculturative stress	1	-.465 (<.001)	-.353 (<.001)
Social support		1	.599 (<.001)
Self esteem			1

$p<.001, p<.05$

3.5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사항에서 직업 변수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에 대한 기본가정은 Durbin Watson을 이용한 오차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검

<Table 3> Degree of Participants' Acculturative Stress

(N=181)

Category	Items	Mean	SD
Sense of discrimination	I am treated in a different way according to the social circumstances.	2.79	1.11
	People have a prejudice against me.	2.96	1.21
	I cannot have many chances to succeed here in Korea.	3.07	1.13
	I feel like I am dealt with unfairly.	3.08	1.22
	My worth is not accepted.	2.96	1.15
	I feel that people like me from a foreign country are discriminated against.	3.02	1.22
	Subtotal	2.80	0.83
Homesickness	I suffer from homesickness.	3.14	1.23
	I am sad that I live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2.80	1.23
	I long for my country and people there.	3.55	1.19
	I am sad that I came here leaving my family and friends behind me.	3.13	1.24
	I am usually alone because of my inability in Korean.	2.77	1.24
	Subtotal	3.08	0.78
Sense of hostility	Other people make fun of the cultural values I have.	2.70	1.25
	People in Korea do not say anything but they hate me.	2.85	1.28
	People here do not estimate my cultural value correctly.	2.97	1.14
	People's actions show me their feelings of hatred.	2.56	1.19
	People's language here show me the feelings of hatred.	2.80	1.23
	Subtotal	2.77	0.88
Fearfulness	I worry about personal safety because of a different culture.	2.79	1.24
	I am not safe here.	2.71	1.26
	I avoid outside activity because of fearfulness of the new environment.	2.81	1.27
	Subtotal	2.77	0.99
Cultural shock	I feel uncomfortable in adapting to new foods.	2.60	1.29
	I feel some pain since I came to Korea.	3.15	1.23
	I have a difficult time adapting to the new culture.	3.03	1.18
	Subtotal	2.93	0.97
Guilt feeling	I feel guilty that I came to Korea leaving my family and friends in my country.	3.03	1.25
	I feel guilty that I live a different life style here.	2.69	1.10
	Subtotal	2.86	0.94
Others	I am nervous whenever I try to speak in Korean.	3.18	1.16
	I hesitate to take part in social activity in Korea.	2.93	1.14
	I get angry with the thoughts about people from abroad like me.	2.86	1.18
	I get hurt when people here don't understand my cultural values.	3.10	1.22
	I am daunted because of the cultural background I have.	2.76	1.23
	I feel I am in a low position in this society because of my cultural background.	3.01	1.10
	I do not feel I belong to any group here.	2.98	1.06
	I feel sad when I think of the problems of people from abroad.	2.92	1.18
	I think people do not want to make friends with me because they treat me as foreigner.	2.86	1.22
	I worry about my future because I cannot decide whether to stay here or go back to my country.	2.92	1.20
		Subtotal	2.95

<Table 5>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ve Stress of Participants

(N=181)

Variables	B	SE	β	t	p	Adj. R ²	F	p
(Constant)	163.911	9.650		16.454	.000		27.672	.000
Self esteem	-2.258	0.338	-.442	-6.672	.000	.212		
Job*	17.373	7.818	.147	2.222	.028	.229		

*Dummy variable: 0=Simple labor, 1=Service Business, Agriculture, mining, Fishing, Specialist
 p<.001, p<.05

정 결과 1.835으로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었고,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계는 .621~.987으로 0.1이상을 보였으며, 분산팽창계수 값은 1.00~1.02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분포성, 등산성이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다중회귀분석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 요인은 자아존중감($\beta=-.21, p<.001$), 직업($\beta=-.02, p<.05$)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는 .23으로 설명력은 23.0%로 나타났다 ($F=10.28,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2.86점(총점 5점)으로 보통수준 보다 약간 높은 점수이었다. 이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eon과 Lee[30]의 연구에서의 2.91점과 Cho[31]의 연구에서 나타난 2.87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Lee 등[7]의 연구결과에서 2.52점과 Kim과 Kim[23]의 2.54점과 비교해보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 등[7]과 Kim과 Kim [23]의 연구에서는 우리민족과 외모가 비슷하며 언어적 불편감이 적은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한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인이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가별 차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를 유발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같은 결과는 Kim[32]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 정도를 분석한 Kim[32]의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도는 출신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사회에 적응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 정도가 국가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출신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적응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베트남과 같이 사회문화 적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에서 이주한 근로자들에게는 입국 초기부터 적응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상자들의 직업 유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3,34]. Nwadiora와 McAdoo[35]의 연구에서도 직업을 가진 이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업 활동을 통해 자국민과의 공동체 형성 및 자조모임, 동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적응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35].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언어적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국민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지지원이 될 수 있다 [8].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자국민 공동체의 활성화 및 사회적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을 분석한 결과 7개 하위영역 중 향수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Lee 등[7] 연구와 Kim과 Yang[30]의 연구, Choi[32]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같은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주 기간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이주하는 나라의 특성이나 이주 집단의 유형, 이주자 개인이 가지게 되는 특성, 사회적 지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7].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과반수 이상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 이는 문화적응 단계인 접촉시기, 갈등시기, 갈등 해결시기 중에서 접촉시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음을 의미하며, 이 시기의 이주민들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남겨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크게 느끼게 된다[7].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준다는 Jung[3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Thomas와 Choi[3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주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두려움 및 상실감, 경제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8], 이같은 스트레스는 이주자의 개인적, 사회적 대처자원 특히 사회적 지지에 의해 경감될 수 있다[8,13]. 또한 사회적 지지는 이주자의 불안수준을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이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호 요인이다[8,13].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및 사회적 지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시말해 외국인 근로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낮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직업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변수는 자아존중감이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들이 노년기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15]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한다면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22%로 설명력이 낮은 편이다. 추후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을 추가한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요인 및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청 남·북도의 3개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내 전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구결과를 확대 적용시키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의 산업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인적 자원이다[38].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긍정적인 적응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문화교류지원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의 개발·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정도는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긍정적인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적응을 도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모국공동체를 활용한 실무적용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확대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별 특성 및 개인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Daejeon university.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Statistics on foreign residents by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immigrants [Internet]: Statistics Korea. 2016 [cited 2016 March 4]. Available from
- [2] H. Im, H. Y. Lee, "Resilience and Mental Health among Migrant Workers in Busa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Vol. 29, No. 5, pp. 13-26, 2012.
- [3] S. H. Kim, "The study on the influencing of acculturation stress among foreign migrant worker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5.
- [4] D. H. Kim, Y. C. Cho. "Occupational Stress and Its Associated Factors among Male Workers in Small-scale Manufacturing Industries under 50 Memb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10, pp. 405-143, 2012.
- [5] M. D. Kim, C. H. Lee. "A Study on the Relevance between Workers'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by Job Stress in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5, pp. 207-215, 2016.
DOI : 10.14400/JDC.20176.14.5.207..
- [6] J.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46, No. 1, pp. 5-68, 2006.
DOI:http://dx.doi.org/10.1080/026999497378467
- [7] S. H. Lee, Y. J. Lee, S. Y. Kim, S. J. Shin,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in Migrant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 39, pp. 899-910, 2009.
DOI : https://doi.org/10.4040/jkan.2009.39.6.899
- [8] I. S. Lee,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migrant worker's mental health: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4.
- [9] H. Y. Jung, "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y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259-268, 2016.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5.13.07.259
- [10] H. M. Kim, S. H. Kim,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 migrant workers and contributing factors-Examin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 30, pp. 78-100, 2008.
- [11] S. Y. Lee, J. S. Lee. "The Convergent Effect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in Femal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pp. 335-344, 2016.
DOI : 10.14400/JDC.2016.14.12.335S.
- [12] D. H. Kim, "Study of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of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8.
- [13] T. I. Choi, "Th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er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1.
- [14] J. Han, S. H. Lee, "A Study on Structural Relations among the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College Life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Convergence Leisure Sports Activ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515-523, 2015.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5.13.08.515
- [15] S. Y. Lee, J. S. Lee, Y. Y. Kim.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5, pp. 401-409, 2016. DOI : 10.14400/JDC.2017.15.5.401.
- [16] Y. N. Young, M. S. Young, "Effects of self-esteem and health status on adaptation of elderly residents in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Adults*

- Nursing, Vol. 22, No. 5, pp. 552-560, 2010.
- [17] R. I. Yoon, "The influence of married women immigrants' self-esteem, Korean language skills and husbands' abilities to use wives' native languages on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2.
- [18] Y. Oh, G. F. Koeske, E. Sales, "Acculturation, stress,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42, No. 4, pp. 511-526, 2002. DOI:<https://doi.org/10.1080/00224540209603915>
- [19] B. D. Choi, Y. K. Kim, "Foregin Immigrants' Recognition on Related Policies and Supporting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Vol. 17, No. 4, pp. 357-380, 2011.
- [20] M. S. Lee, H. I. Lee, J. J. Lee, M. S. Yoon, S. H. Kim, "Effects of Participation in Korean Traditional Dance o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6, pp. 2567-2574, 2011. DOI:<https://doi.org/10.5762/kais.2011.12.6.2567>
- [21] A. H. Jaung, H. J. Kim, H. J. Jeong, "A study on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of Filipino Marriage-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2, pp. 5509-5517,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2.5509>
- [22] Y. S. Lee, M. H. Jeo, S. H. Hong, "A study of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the marti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Who Are married to Korean Men-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6, No. 4, pp. 171-194, 2012
- [23] S. H. Kim, S. H. K, "Foreign Wokers' Acculturative Stress in Korea Societ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8, pp. 3832-3842, 2013. DOI:<https://doi.org/10.5762/kais.2013.14.8.3832>
- [24] D. S. Sandhu, B. R. Asrabadi,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Vol. 75, pp. 435-448, 1994. DOI:<https://doi.org/10.2466/pr0.1994.75.1.435>
- [25] S. R. Lee,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5, pp. 209-247, 1997.
- [26] G. D. Zimet, N. W. Dahlem, S. G. Zimet, G. K. Farley,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2, No. 1, pp. 30-41, 1988. DOI:<https://doi.org/10.1037/t03506-000>
- [27] J. S. Shin, Y. B. Le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Psychosocial Well-being of the Unemployed". *Korean Journal of Society Welfare*. Vol. 37, pp. 241-269. 1999.
- [28]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65.
- [29] G. S. Jo, "Effect of music therapy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stress of institutionalzed elderly-focusing on nursing home in daebu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2008.
- [30] H. J. Jeon, G. E. Lee,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of vietnamese immigrant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6, No. 4, pp. 380-389, 2015. DOI:<https://doi.org/10.12799/jkachn.2015.26.4.380>
- [31] I. Y. Cho,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in foreign migrant workers in their anxiety speaking kore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0
- [32] Y. L. Kim, "A study on the sociocultural adaptation of immigrant wokers in korea." *Discourse 201*, Vol. 11, No. 2, pp.103-138, 2008. DOI:<https://doi.org/10.17789/discou.2008.11.2.004>
- [33] J. K. Kim, H. Y. Yang,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and stress-coping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3, No. 1, pp. 50-59, 2011.

- [34] B. R. Seo, "Saetermin adolescent's acculturative stress and drinking behavior: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alcohol expecta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2009.
- [35] E. Nwadiora, H. M. CAdoo,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ican refugees :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cense*, Vol. 31, pp. 477-487, 1996.
- [36] Y. M. Jung, "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among korean registered nurs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192-202, 2014.
DOI:<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192>
- [37] M. Thomas, J. B. Choi,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n and indi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Vol. 33, pp. 123-143, 2006.
- [38]. H. S. Lee, S. H. Lee. "Research on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5, pp. 117-123, 2016.
DOI : 10.14400/JDC.20176.14.5.117.

김 지 현(Kim, Ji Hyun)



- 200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5월 ~ 현재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만성질환
- E-Mail : kbm5878@hanmail.net

김 보 미(Kim, Bo Mi)



- 2013년 2월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5년 6월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2015년 9월 ~ 현재 :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 관심분야 : 노인복지, 복지실천
- E-Mail : jheyelin@dju.kr